

기도는 대화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스페인어 단어인 *콘베르사르*(conversar)는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사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술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콘베르사르라는 말에는 “대화를 나누다”, “이야기를 하다”뿐만 아니라 “사귀다”, “교감하다”라는 뜻이 있다. 콘베르사르라는 말은 이냐시오가 기도와 사목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간명하게 드러낸다.

영적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이냐시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강생이라는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 주기를 원했다.

이냐시오가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려 했는지는 그리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이냐시오 영성이라고 알고 있는 태도, 통찰, 기법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실수를 했고, 암흑과도 같은 길에서 여러 차례 헤매기도 했다. 그는 설교를 통한 사목에 전문적인 성직자들로 구성된 도미니코 회원들이 일하는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냐시오는 훌륭한 설교에 감탄해 마지않았으나, 이는 그가 찾고자 했던 복음화 방법이 아니었다. 이냐시오는 가난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힘 있

게 증거했던 프란치스코 회원들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러나 겸손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순회하며 탁발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영성적 접근 방식들은 너무도 수동적으로 보였다. 이 방식들은 서적을 읽고 설교와 강의를 듣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선의나 선한 행동에 수동적으로 몰입함으로써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냐시오는 적극적인 영성을 실천했다. 그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삶을 나누고 있었다. 은총과 선물과 재능을 적극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이냐시오의 복음 전파 방식이 되었다.

이냐시오는 콘베르사르라는 단순한 스페인어 단어로 자신의 사목 방식을 묘사한다. 콘베르사르는 “이야기를 나누다”, “누군가와 말을 하다”라는 뜻이다. 이 말에 담긴 가장 단순한 뜻은 다른 이와 진솔하게 나누는 이야기 즉 상대방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편안하고도 흡족한 대화이다. 이냐시오야말로 이러한 대화의 달인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는 우정 어린 관계를 맺는 데 특별한 재능을 지녔다. 초기 예수회원들은 처음에 이냐시오 로올라에 대한 사랑과 우정으로 결속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콘베르사르는 더 넓은 의미로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과 “친숙

하다”는 뜻도 있다. 다시 말해, 그 대상을 참으로 깊이 안다는 것이다. 이 말에는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도 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게 된다. 이 나시오식으로 보자면, 대화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대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이나시오의 영성 생활은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대화에 기초한다. 또한 영성 지도자나 고해 사제 또는 삶의 이상과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벗과의 대화를 통해 발전해 왔다. 그리고 사목 활동 중에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 표현되었다. 이 세 가지 대화 모두가 영신수련에서 구현된다. 피정자는 영성 지도자와 대화를 하며 피정을 안내 받는다. 영성 지도자는 피정자가 하느님과의 대화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를 복돋운다. 영신수련의 목적은 피정자가 사목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욱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사실, 영신수련이 바로 수년간의 대화로 얻어진 산물이다. 이 나시오는 하느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성 지도를 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영신수련을 발전시켰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방법, 묵상할 성서 구절, 관상할 성경의 장면들, 깊이 숙고할 거리들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나서, 피정자의 기도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대화하면서 하느님께

서 어떻게 그를 이끌어 주셨는지 함께 식별했다.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 발전이라는 주제로 쓴 책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나시오의 책은 바로 대화를 통해 정교하게 갈고 닦은 기도를 모아 놓은 것이다.

영신수련은 피정자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 발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신수련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시듯, 즉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가족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촉구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실 때 당신의 아버지를 **아빠** *abba*라는 정감 어린 말로 부르신다. 이는 우리말의 “아빠”에 가장 가까운 단어이다.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이렇게 똑같이 친밀하고 친근하게 하느님을 부를 수 있다.

기도는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기도는 신비로운 것도 아니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것도 아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도는 대화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 물론 대화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다. 사실, 이나시오의 이러한 의향을 모아 놓은 것이 영신수련이다. 그러나 기도라는 행위의 본질은 우리의 인성에서 자연스럽게 솟아 나오는 것이다. 매우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일과 같은 것이다.

“스승님,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

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숙고해 보자. 과연 하루에 적어도 다섯 번 기도하던 착실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이에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보기가 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방식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문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 준다. 우리는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사이이고(“우리 아버지”), 그분을 경배하며(“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분과 같은 열망을 가지고 있고(“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청하고(“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보호를 간청한다(“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기도>에 담겨 있는 이러한 요소들은 인간이 하는 대화의 모든 영역을 아우른다. 즉, 경험을 나누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도움을 청하고, 고통 중에 소리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하며,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하는 일들이다. 하느님과 함께할 때도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기도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신비적 기도, 신심 기도, 전례 기도, 거룩한 독서, 일상생활 안에서 문득 하느님께서 현현하시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이냐시오의 콘베르

사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라는 그 유명한 이냐시오의 모토가 뜻하는 것이다. 이냐시오에게 “모든 것”이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하고 있는 일, 우리의 분투와 실패, 우리의 희망과 꿈 모두를 포함하는 인간 드라마의 총체적 집합체이다.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 발견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하기 위한 지성적 훈련이 아니다. 그것은 삶 안에 하느님을 끌어들이고 그분과 만나고 사귀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콘베르사르, 즉 서로 사랑하는 가족 간에 일어나는 친밀한 대화와 교감과도 같은 것이다.